제 10장
유월절과 그리스도의 고난

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여라.
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.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. 그 후에는 너희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며,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심판할 것이다.
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해 줄 말이 있다. 시편 41:9절 말씀은 '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'라고 예언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, 너희 중 그 손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.
그럴리가요!
그렇게 정해져 있으나 그런 일을 할 자에게는 화가 있다.
주님, 접니까? 저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데요.
주님, 저는 아니죠, 그렇죠?
선생님,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.

마태복음 26:23~29; 요한복음 13:26~30

마태복음 26:33~35; 요한복음 13:31~38; 고린도전서 11:24~25

요한복음 14:1~3; 고린도전서 11:24~26

하지만 주님,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, 저희가 주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
너희는 그 길을 안다.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다.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다.
선생님,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.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.
빌립아,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?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또한 본 것이다.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.
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.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. 그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 것이야.
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.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.
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. 내가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.
일어나 찬송을 드리고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.
예수님과 열 한 제자는 함께 하는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.

마태복음 26:31, 38; 요한복음 16:19~20, 17:1~10

시편 23:5~6; 누가복음 22:41~44; 히브리서 6:6, 12:2

마태복음 26:40, 45~50; 요한복음 12:27, 18:1~4

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.
그가 바로
조심해! 그에겐 능력이 있다!
군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땅에 넘어졌습니다.
바로 저 자다. 무엇을 두려워하느냐? 붙잡아라!
우리 선생님을 잡아가지 못한다.
퍽!
아악!

요한복음 18:4~6, 10

마태복음 26:52~57; 마가복음 14:51~52; 누가복음 22:50~51

그들은 제사장과 증인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.
빨리 움직여. 사람들이 듣기 전에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어들 하신다.
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, 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한다고 증언한다. 너는 네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다. 너는 어디서 왔느냐?
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. 왜 나에게 묻느냐?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.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안다.
퍽
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에게 대답해선 안 돼!
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증언을 해라. 그러나 내가 잘 말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?
이 사람의 잘못을 증언할 증인들을 들여보내라.

이 자는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자기 손을 쓰지 않고서 삼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.
아니오, 누구 다른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요.
중 가장 오른쪽 사람, 중간에 써 있는 말] 자네는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. 난 그가 한 말을 들었어. 그는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구. 내 생각엔 자기 몸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.
말도 안 돼.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을 삼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인가?
나도 몰라. 성전은 어떻게 삼일 만에 다시 올릴 수 있나?

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? 자신을 위해 답변하지 않을 것이냐?

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않으셨습니다.
저 바보가 대답도 안 하는구나.

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명령하니,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대답하여라.
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. 그리고 내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.

더 이상 증인이 필요없다. 우리가 우리 귀로 듣지 않았는가.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. 그는 죽어 마땅해!
눈을 가려라. 어떤 선지자인지 한 번 보자.
제사장은 큰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.

마태복음 26:67~70; 누가복음 22:64~65

마태복음 26:71~75, 27:1~2; 누가복음 22:58~62, 23:1

채찍으로 내리쳐라!
하나님,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?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그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? 왜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?
어서 와. 밤새 시간이 있는 게 아냐.
아버지, 제게 힘을 주십시오.
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? 네 스승을 배신한 값으로 이미 충분히 주지 않았느냐?
마음을 바꿨소. 그를 풀어주시오. 그러면 그 돈을 도로 돌려주겠소.
이 돈은 피값이니 정결치 못하다. 만지지도 않겠다.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너희 선생은 죽을 것이야. 넌 두려워할 필요 없다.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우리가 너를 좀 쓸 수도 있지.
돈을 가져가시오. 난 필요 없소. 내 죄를 안고 살 수가 없소.
땡그랑
으~!
불쌍한 바보 같은 자식.
이렇게 살 수는 없어.

마태복음 27:3~6

마태복음 27:5; 사도행전 1:18

마태복음 27:8; 마가복음 15:14; 누가복음 23:1~4; 요한복음 18:29~38; 사도행전 1:18

누가복음 23:11; 요한복음 19:1~2

등이 엉망진 창인군!
난 언제고 꼭 왕을 채찍질해보고 싶었는 걸.
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나. 이 자주색 옷을 입혀봐.
왕이면 왕관도 필요하겠지.
하하, 이걸로 훌륭한 왕관을 만들겠군.
아야!
자, 각하, 이 홀을 쥐셔야지요. 하하하.
머리에다가 꽉 조이게 잘 씌워 봐.
온 세상의 왕이여, 왕관을 씌우겠습니다.
아아악!
자, 똑바로 일어서!
홀을 세워 들어야죠, 각하.
하하하. 만수무강 하소서.
그래. 행운이 있으면 해 질 때까지는 말야.

누가복음 23:13~22; 요한복음 19:4~8

마태복음 27:24; 요한복음 19:9~17

마태복음 27:32; 누가복음 23:26~33

여기, 이것을 마시라, 이것이 고통에 무디게 해 줄 것이다.
아니다,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한다.
그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구나.
그를 펴서 눕혀.
그를 펴서 눕혀.
이제 그를 꽉 잡아. 그들은 칫 못질에 미친 듯 날뛸 거야. 못이 뼈와 나무 사이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만 해.
안돼! 나의 아들이여!
쿵. 쿵.
CRUNCH
너는 그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해?
뭔가 오래된 예언 같은 것이 아닐까? 누가 알겠어.

마태복음 27:33~34

다리 잘 잡아. 뼈 + 사이로 못 박는 건 때로 여러 번의 못 질이 필요하니까.

오, 마리아, 나는 내가 견디고 있다는 걸을 믿을 수가 없어.
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.
당겨, 이 멍청한 놈.
난 도움이라도 받았지, 이 게을러빠진 자식.

아버지, 이들을 용서하소서.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.
요한, 네가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. 정말이지 이건 너무나 괴롭구나.
우리 모두가 그를

누가복음 23:32~34

시편 22:18; 마태복음 27:39~43; 요한복음 19:23~24

누가복음 23:36~43; 요한복음 19:25~27

마태복음 27:45~50; 누가복음 23:44~46; 요한복음 19:30; 고린도후서 5:21

시편 34:20; 스가랴 12:10; 마태복음 27:54; 요한복음 19:31~37

적어도 그들이 그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구나.
마리아, 내가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도울 것이 있는지 볼게요.
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됐고, 점점 늦어졌다. 그들은 시체 묻는 일을 서둘러야 했다.
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, 부자인 요셉이, 예수를 그의 무덤에 묻게 하기를 자청했다.
INRI
곧 안식일입니다. 나의 새 무덤에 그를 놓지요.
요셉,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. 당신은 좋은 친구에요.

요한복음 19:31, 38